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545
----------	------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 권칠승 · 박해철 · 이기현
홍기원 · 이병진 · 강선우
허 영 · 문금주 · 김준형
전용기 · 김태년 · 김준혁
윤종균 · 강득구 · 임호선
염태영 · 김교홍 의원
(17인)

주 문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 1870~1964)가 조선에서 수집해간 유물 1,900여 점을 지칭한다.

이 중 왕실 물품은 궁내부가 관리하던 것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 없고, 부산 연산리 고분 출토 유물, 창녕 출토 유물은 발굴 기록이 없어 도굴품으로 확인되며, 금관총 유물의 경우 총독부가 발굴한 유물이 외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불법 도난품을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지난 1965년 한일회담 당시 우리 정부는 오구라컬렉션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최종적인 반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1981년에

오구라컬렉션을 수증하는 과정에서 1965년 12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사록」에 따라 우리 정부에 이를 알리고 기증을 권장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의 오구라컬렉션 취득은 식민지 당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의 기원국으로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1973년 UN총회 결의 3187호’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이 아직까지 오구라컬렉션 등 불법·부당하게 취득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소장하고 전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취득 여부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성실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을 대한민국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의 불법 반출 여부에 주목하고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중 조선대원수 투구·갑옷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유물임. 이 물건은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으로 결코 타국에 양도될 수 없는 문화재이며 개인 간의 사사로운 거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

주칠 12각상의 경우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본인이 명성황후의 건청궁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오구라 관련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오구라컬렉션의 유물 전체의 유출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부산 연산리 고분 출토 유물, 창녕 출토 유물은 공식 발굴 기록이 없고, 경주 금관총 유물의 경우 총독부가 발굴한 유물이 외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알면서도 도쿄국립박물관이 해당 유물을 기증받은 것으로 보임. 이는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하여 일본 정부에 오구라컬렉션 불법 반출 여부에 대한 성실한 조사를 촉구하고 불법으로 드러난 문화유산의 경우 즉각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임.